

민주 당권주자들, 광주서 지역현안해결사자처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가 2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당대표 후보가 연설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계파 프레임' 논쟁...송영길 "無계파" 우원식·홍영표 "없는 걸 정치적 이용"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간에 이른바 '계파 프레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나는 계파찬스로부터 자유롭다'면서 우원식·홍영표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리자, 두 후보는 당내 계파 구분을 일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우원식 후보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이해관계를 나누는 계파는 우리한테 없고 의원들 간 친소관계에 의해 모이는 정도의 모임들이 있다"며 "계파를 깨내는 순간 없던 계파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가 지난 16일 BBS 인터뷰에서 "나는 계보 찬스를 쓰지 않는 평등한 출발선에 선 민주당원"이라며 "알다시피 홍영표 의원은 (친문) 부영이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원식 의원은 민평연이라는 당내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우 후보는 "계보는 공천권과 연결되어 이해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지난번 계파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공천 가지고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이 저의 정치철학 중심"이라며 "이것을 '계파 찬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후보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계파 구분에 대해 "한마디로 옛날이야기"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이 친문이고 비문인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소위 우리 당에서 그런 식의 계파, 의원들을 분류하는 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나타난 언어들"이라며 "나는 그런 건 우리 민주당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안별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도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친문, 비문으로 나눌 수는 없다"면서 "항상 선거 때 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전남·제주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계파와 파벌에서 자유로운 송영길이 공경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다"면서 자신의 '무(無)계파'를 어필했다.

그는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우원식·홍영표) 그분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내가 (계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나는 친문, 비문으로 하지 말고 계보로 보자는 것이었다. 우리 다 친문이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송영길 "군공항 이전, 지역 사안으로 남기지 않을 것" 홍영표 "2018년 진통 '광주형 일자리' 타결 산파역할" 우원식,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법 개정 꼭 필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광주·전남지역 현안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2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영길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을 지역 갈등 사안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을 통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대로 지역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광주, 전남, 전북의 에너지 경제공동체 호남 'RE300'은 호남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다"면서 "이미 12GW

세계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6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대 의과대학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꼭 추진하겠다"면서 "2017년 5월 9일 선거를 회상한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민주당 전 지역조직이 하나가 돼 완벽한 대선 승리를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홍영표 후보는 "2018년 원내대표를 지내며 노사정이 진통을 거듭했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의 산파 역할을 했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끝까지 챙기겠다"면서 "광주·전남을 AI(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협의체가 구성됐다"면서 "재정확보가 어렵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자체가 반대할 수 있는 없는 만큼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선욱기자

이재명 "재보선 결과 매우 충격...부동산 文대통령 말씀이 답"

재보선 후 첫 국회 방문...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

여권의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반성문을 썼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사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측면도 존재하지만 정말로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

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여권이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데 답이 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한 것에 모든 답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특히 주택은 주거수단이다. 실거주용 1주택,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투자나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여·야, 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외교 총체적 실패"

정의용 "IAEA에 우리 전문가 참여 요청...긍정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외교통일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할수록 세우 오염수 탱크 내 저장이라는 대안 대신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

다. 정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미 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불충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재정·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방역 홍보만 했다",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빼놓고는 일본이 부대행사 4번을 하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동안 K-방역 홍보만 했다"며 "IAEA 총회에 가서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게 작년"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